

3주차

조선의 건국, 정치이념으로서 유교, 그리고 왕

소진형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유교국가로서의 조선

- 도입
- 유교적 질서의 토대로서 인간관계
- 인간관계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그리고 예(禮)

02. 조선 건국의 의미

- 세습제도에서 왕은 항상 좋은 왕일 수 있는가?
- 조선 건국자들의 정치에 대한 구상

03. 조선 왕의 의미

- 조선 왕의 정당성
- 이성계는 왜 왕이 되어야 했는가?
- 〈용비어천가〉와 태조 이성계의 정당성

04. 왕으로서 이성계의 정치적 정당성

- 이성계의 즉위
- 고려의 마지막 왕들은 ‘왕씨’가 아니다

05. 강한 무력을 소유한 왕 vs 성리학적 군주

- 이성계의 다음 왕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 왕자의 난과 정도전의 제거

3차시

조선 왕의 의미

학습목차

학습목표

- 고려와 다른 유교 국가 조선에서 왕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으로 규정되었는지를 알아본다.

학습내용

- 조선 왕의 정당성
- 이성계는 왜 왕이 되어야 했는가?
- 〈용비어천가〉와 태조 이성계의 정당성

조선 왕의 정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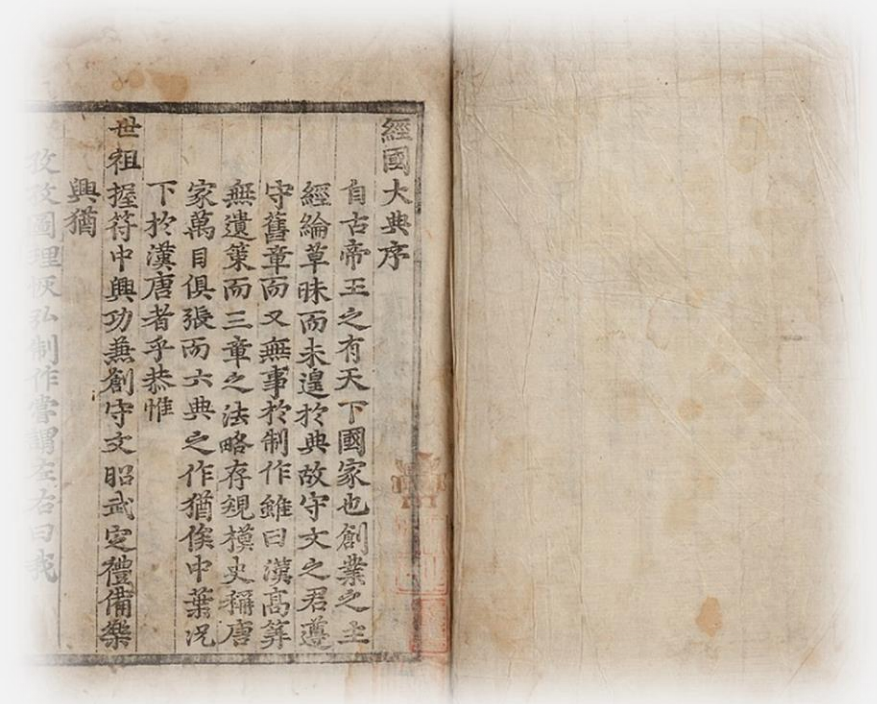
이성계

(李成桂, 1335-1408)

- 조선의 첫 번째 왕, 무관 출신

조선과 고려 왕의 차이

- 조선의 법전에는 왕과 왕비에 대한 법적 정의나 규정이 나오지 않음
 - 왕과 왕비의 정확한 역할과 기능, 권력의 범위에 대해 법조항을 통해 알기 어려움



경국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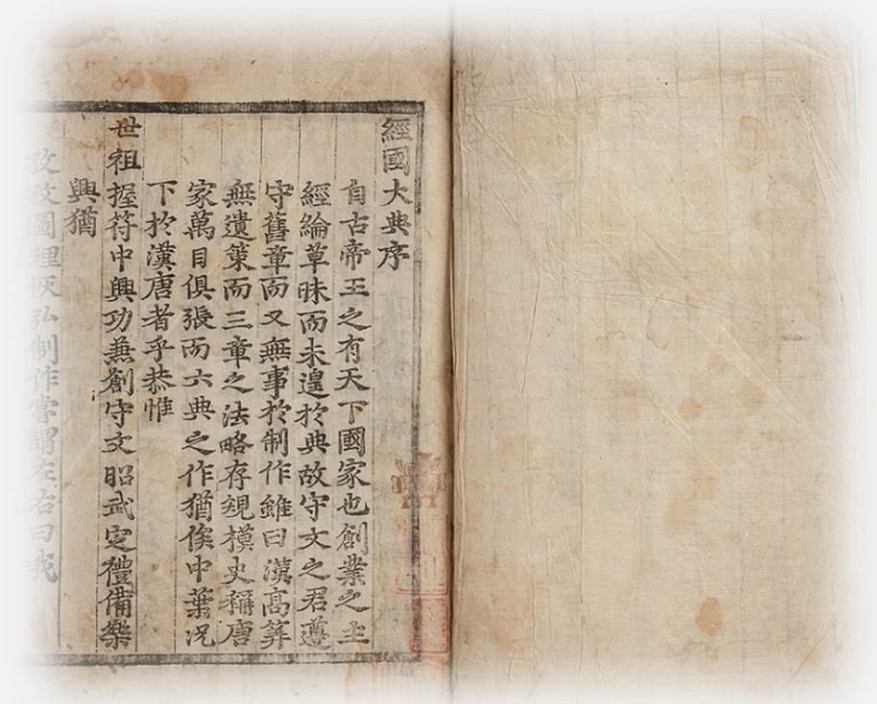
왕과 왕비의 연구

- 자료의 부재

→ 다양한 자료 수집, 연구 필요

조선과 고려 왕의 차이

- 조선의 왕과 왕비의 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무엇을 표상하거나 대표하는지를 알아야 함
→ 이성계의 건국이 무엇으로 정당화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



경국대전

중세 서양의 왕

- ‘신의 대리자’로 묘사

**이성계는
왜 왕이 되어야 했는가?**

이성계

(李成桂, 1335-1408)

- 조선의 첫 번째 왕, 무관 출신
-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를 막아 고려사회의 영웅이 됨



태조 어진

이성계 활동 시기

(李成桂, 1335-1408)

- 명과 고려의 관계가 나빠짐
 - 철령 이북의 땅을 둘러싼 대립 심화

이성계

(李成桂, 1335-1408)

- 고려에서 명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
→ 요동정벌을 가던 중 위화도 회군
- 정치적 숙청을 시작하여 권력을 장악



태조 어진

이성계

(李成桂, 1335-1408)

- 조선의 왕실은 성리학에 정통한 학자도, 귀족도 아닌 무관 출신으로 시작함



태조 어진

성리학적 국가의 무관 출신 왕

- 건국 초기에는 문관이나 학자보다 군사력을 장악한 무관이 왕이 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막는 데 더 적합할 수 있음
- 의문: 무관인 이성계가 성리학적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는가?

재상의 강조와 왕의 역할

-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
 - 왕의 역할보다 재상을 강조
 - 이성계 이후 왕들의 교육을 강화시킴
- 성리학적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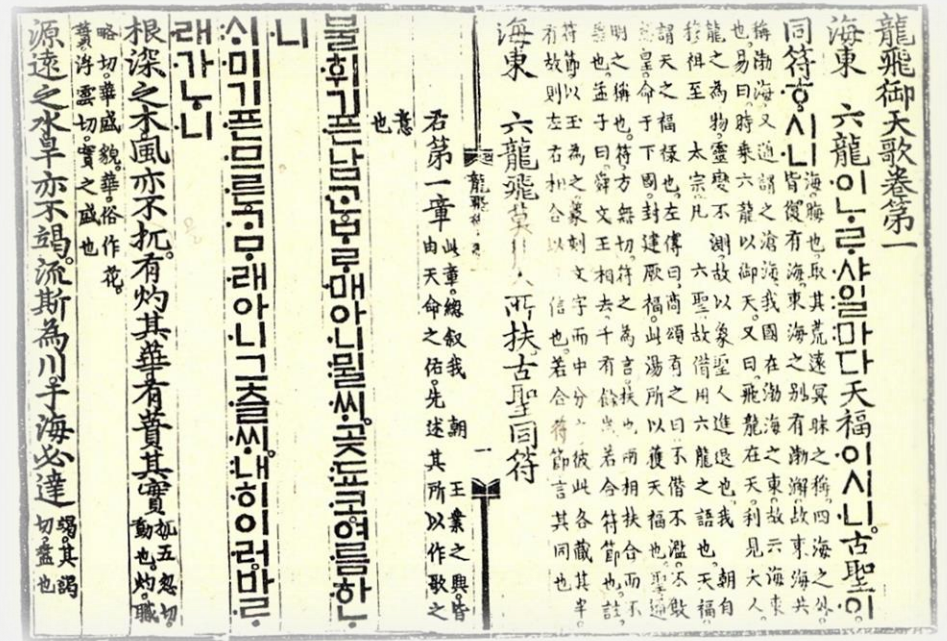
재상의 강조와 왕의 역할

- 왕의 이상적인 모습
 - 모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
 - 사법적 판단권을 갖는 사람
 - 관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함

<용비어천가>와 태조 이성계의 정당성

왕이 된다는 것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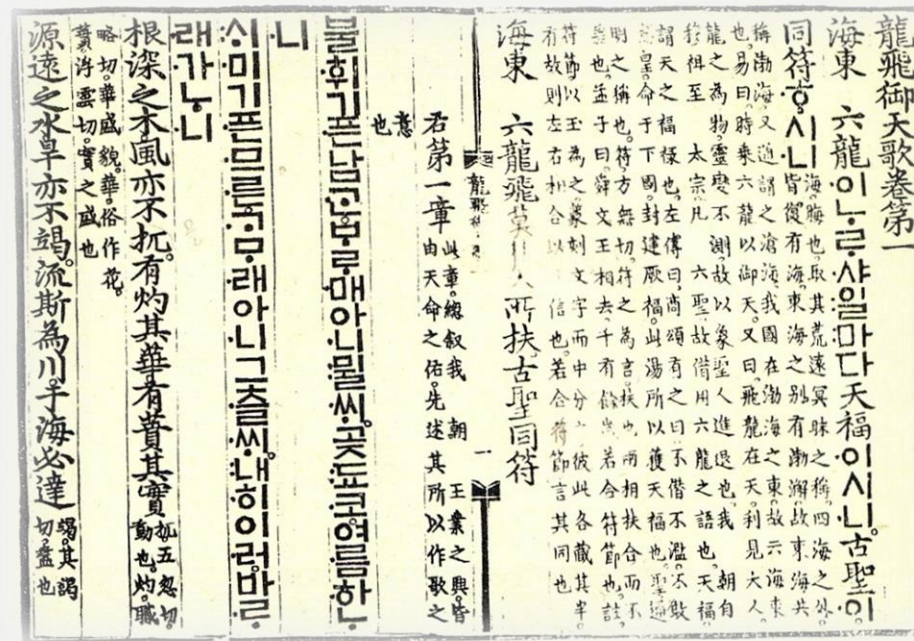
- 천명(天命): 이성계는 천명을 받아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정당화됨
- <용비어천가>: 이성계가 받은 천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줌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뒤 그의 선조들이 천명을 받아 조선이 건국되었다는 내용을 쓴 일종의 서사시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해동의 여섯 용이 나시어 일마다 하늘의 복이니 옛 성인들과 같으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 해동: 바다의 동쪽, 조선
- 여섯 용: 세종의 조상들. 목조, 익도,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용비어천가>

“해동의 여섯 용이 나시어 일마다 하늘의 복이니 옛 성인들과 같으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 용이 난다는 것의 의미: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용비어천가>

“해동의 여섯 용이 나시어 일마다 하늘의 복이니 옛 성인들과 같으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 태조의 선조들이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에게 천명이 내려왔고, 앞으로 자손들이 많아져 왕실이 번창할 것이라는 뜻

<용비어천가>

“주나라 대왕이 빈곡에 살으사 제왕의 업적을 여시니

우리 시조께서 경흥에 살으사 임금의 업적을 여시니”

- 주나라 왕들과 세종의 선조들의 업적 중 유사한 것들을 나열
- 이 이후 구절들은 모두 대구로 이루어져 있음

<용비어천가>

“주나라 대왕이 빈곡에 살으사 제왕의 업적을 여시니
우리 시조께서 경흥에 살으사 임금의 업적을 여시니”

- 이는 조선의 건국을 주나라의 건국에 비유하기 위한 것
- 조선의 이성계가 천명을 받은 것은 주나라처럼 오랫동안 조선 왕실이 덕을 쌓았고 주나라 왕들처럼 훌륭한 정치를 했기 때문

<용비어천가>

“성손(무왕)이 한 번 성내셨으니, 육백년의 천하가 낙양으로 옮은 것입니다.

성자(태조)가 세 번 사양하시나, 오백년의 나라가 한양으로 옮은 것입니다.

(중략)

백성이 쇠퇴하매(가난하매) (주 나라 세종은) 땅 세금 제도를 고치시니,

일곱 성의 난이 있는 뒤에 태평의 정치가 되기를 위하시니

약탈이 나라를 병들게 하거늘(망치거늘), (이 태조는) 토지 제도를 고치시니,

거짓 성을 내친 뒤에 (고려의) 중흥을 위하시니”

조선 왕을 주왕에

비유한 의도

- 주나라는 가장 이상적인 고대 국가로 추앙받는 국가
- 주나라의 천명을 받았다는 주 문왕
- 그리고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 무왕은 상나라의 신하,
즉 제후들
→ 이성계와의 유사성

조선 왕을 주왕에

비유한 의도

- 국가와 왕을 새로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많은 관료, 학자, 귀족 중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 왕을 선택한다고 해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조선 왕을 주왕에

비유한 의도

- 조선은 고려와 전쟁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켜 국가를 세우지 않았음
- 무폭력이었기 때문에 평화적 정권 이양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정치적 리더로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

조선 왕을 주왕에

비유한 의도

- 폭정을 일삼는 폭군을 무너뜨리고 새로 국가를 세운
주나라의 서사는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해주는 좋은
사례
- 세종이 주나라의 서사를 빌어와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한 것은 효과적인 전략

조선 건국의 정당성 확보

- 조선 초까지 고려말의 귀족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중요
- 그 중에는 이성계의 출신을 잘 알고, 이성계의 능력을 인정해도 왕조를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음
→ 이들을 설득할 필요성

마무리

- 태조 이성계의 건국의 정당성
- 조선의 건국을 중국 주나라에 비유, 강조

[출처01]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emuseum.go.kr/detail;jsessionid=A4288FDA8A1E77883032F6734D368F10?relicId=PS0100200100105774800000>

[출처02]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D%83%9C%EC%A1%B0_\(%EC%A1%B0%EC%84%A0\)#/media/%ED%8C%8C%EC%9D%BC:King_Taejo_Yi_02.jpg](https://ko.wikipedia.org/wiki/%ED%83%9C%EC%A1%B0_(%EC%A1%B0%EC%84%A0)#/media/%ED%8C%8C%EC%9D%BC:King_Taejo_Yi_02.jpg)

[출처03]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C%9A%A9%EB%B9%84%EC%96%B4%EC%B2%9C%EA%B0%80#/media/%ED%8C%8C%EC%9D%BC:Yongbieocheonga.jpg>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정다영

영상
김록현